

전주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 업무협약

전주시·문화재청, 비대면 체결... 총사업비 30억원 투입 전주동물원 부지에 구축

조정대상 기준 모두 해당돼 청약·대출 등 규제... 아파트 값 등 안정화 되면 해제 요청

전주가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진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를 포함해 경기 과부와 충남 천안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전국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주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이로써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 9억원 이하의 경우 50%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뀐다.

전주는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전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비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는 전

담팀을 구성하고 완산구와 덕진구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매를 견어볼 것이다.

이에 앞서 사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찰 합동조사팀 운영 등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라면서 "아파트 값 안정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가 전주동물원에 천연기념물 보존관을 건립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7일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이 협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 생태 교육대상으로 활용할 보존관을 건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 및 운영 ▲천연기념물 사육, 재활 및 적응훈련 ▲천연기념물 교육, 홍보를 통한 국민 인식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전주동물원 부지 약 3,950㎡에 전시장과 적응훈련장, 검역에 대비한 격리장 등을 갖춘 시설로 구축된다.

이곳에는 독수리와 소쩍새, 올빼미, 수리부엉이, 참매 등 맹금류 5종을 비롯한 50개체 정도의 천연기념물이 수용된다.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야생에 가까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조감도.

조성하고, 로드킬과 조류 충돌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이 건립되면 환경오염으로 서식지를 잃는 동물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생태보고로 거듭나는 동시에 생명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태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을 통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안락사시켰던 동물들을 보호해 동물복지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지역별, 동물 분류군별로 다양한 보존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 사회 공헌은 공기업의 사명"

전주시설공단, 코로나 휴장 기간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집중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장 기간 동안 지역 사회 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달 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각 시설이 휴장에 들어가면서 코로나19 대응 종합 대책으로 '코로나 휴장 기간 비상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공단은 특히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고객 감동 체험수기 공모전, 시민참여 예산사업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눈높이의 외부 수요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건축과 전기, 기계 등 각 분야별 직원들의 전문성을 심본 활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술 봉사 활동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단은 기술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고소작업차량을 활용해 보안등 교체 작업이나 수목 전지작업 등 사회적 약자 시설 환경 개선 활동

도 진행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063-230-2521)로 신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올 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 ▲독거노인 밀란찬 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급 모금 ▲수해 및 태풍 농가 피해 복구 지원 ▲다중이용시설 방역 봉사 활동 ▲사랑의 바자회 ▲취약계층 연탄지원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백순기 이사장은 "지역 사회 공헌은 공기업의 사명"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공단의 설립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학생 학원 수강료·교재비 지원 신청 받아

전주시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원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 '열린교육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강생 240명을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 120명이다. 이들에게는 매월 학원 수강료(초등 7만 5,000원, 중등 8만5,000원)와 교재비(2만원)이 지원된다. 학원 수강료의 50%는 시가 지원하고 40%는 전주시에 등록된 가맹학원에서 분담해 학생들은 1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 과목은 음악, 미술, 제2외국어, 컴퓨터 등이다. 국어, 영어, 수학은 정부의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으로 인해 지원 대상 과목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 학생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 열린교육 바우처 수강학생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교육청소년과(063-281-531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가구별 소득 수준과 가구원 구성 형태, 자녀 수 등을 평가한 뒤 다음 달 11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농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전주시가 농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도시민까지 교육대상을 늘리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농업교육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총사업비 1억6,000만원에 투입해 농업인구 귀농인, 은퇴자,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등 5,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맞춤형 미래농업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7개 분야, 21개 과정을 운영해 온 시는 농업인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비해 내년에는 9개 분야 24개 과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9개 분야는 ▲친환경 농업인대학 ▲안전 농산물 생산 ▲전주푸드 플랫폼 ▲미디어 파커 양성 ▲농업기술UP 품목 ▲슬기로운 귀농생활 ▲힐링 라이프 도시농업 ▲농사현통 새해농업설계 ▲맛있는 농업 우리 농산물 활용 등이다. 전주푸드 플랫폼과 슬기로운 귀농생활이 새로 만들어졌다.

농산물안전분석실이 본격적인 운영에 맞춰 안전 농산물 생산 교육이 강화된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친환경농업 분야 교육이 연중 추진된다. 신설된 전주푸드플랜 과정은 전주푸드 이해

부터 출하가능 희망품목에 대해 생산·유통·판매까지 전반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다. 농업기술UP 품목 분야에서는 그간 추진한 농업교육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아열대 작물,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교육이 추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농업인 위주에서 귀농인, 은퇴자, 은퇴예정자,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등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새로 개설된 슬기로운 귀농생활 프로그램에서는 토지매입, 주민갈등, 정착실패 사례 등 귀농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작목별 재배기술, 토양관리, 농기계 조작 등 심화내용까지 다뤄진다.

도시민들을 위한 도시농업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스플럼 교육 ▲원예치료 상담 ▲BOOK적BOOK적 도서관 옥상텃밭 ▲혁신도시 어울림 옥상텃밭 ▲도시농업 시민학교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이 추진된다.

박용자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내년에는 보다 확대된 농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주농정과 함께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